

# 高麗時代 言語·文字에 關한 研究\*

沈 在 箕

(國語國文學科 教授)

## 1. 序 言

이 글은 高麗時代 言語·文字의 特性을 概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五百年에 걸치는 긴 期間이요, 더구나 資料의 不備때문에 朝鮮朝以來의 言語·文字를 論議하는 것과 같은 體系의인 敘述은 不可能한 것이지만 檢討 對象이 되는 資料의 綿密한 分析은 高麗時代 全 期間에 걸치는 言語·文字上의 두드러진 特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한다. 물론 대부분 既存의 研究成果를 確認하는 것이겠으나 檢討와 推論過程에서 새로움을 追加하는 것이 없지 않을 것이다.

言語資料로서는 鷄林類事를 다루고 文字資料로서는 高麗시대 몇몇 佛經에 添書된 口訣을 論議의 對象으로 삼고자 한다.

## 2. 高麗時代의 言語

2.1. 鷄林類事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宋나라 사람 孫穆이 肅宗 8年(1103 A.D.)에 편찬한 것으로 推定되는 3卷의 冊이다. 원래는 土風, 朝制, 方言의 3부와 附錄의 表文集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데 현재 전하는 것은 方言部和 土風·朝制의 一部分만 明나라 때 편찬된 說郛와 그후 古今圖書集成의 한 篇으로 끼어 있을 뿐이다. 그 책에 적힌 기록에 따르면 孫穆은 奉使高麗國信書狀官이라 하였으니 그가 고려에 머물면서 관찰하고 수집하고 기록한 내용이 상당히 정확하고도 명료하리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方言이라는 표제 밑에 그 당시의 고려어를 355項目에 걸쳐 宋나라 當代의 漢字音으로 적어 놓았다.<sup>1)</sup> 그러나 진실로 아쉬운 것은 宋나라 시절의 漢字音에 대한 知識이 충분치 않고 傍證資料도 넉넉치 못할 뿐 아니라, 轉寫過程에서 발생한 듯한 訛誤가 있어서 完璧한 解讀에 이르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歲月을 기다려야 할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개의 項目이라도 더 確實하게 읽어내려는 욕심으로 再整理를 試圖한다.

\* 이 논문은 1991년도 교육부(학술진흥재단) 지원 연구과제로 이루어진 것임.

1) 鷄林類事의 語彙資料 項目數는 論者마다 다르다. 語釋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姜信沅(1975)에 따라 355項目으로 보고 語釋도 그에 準하였다. 姜(1975)의 論議는 順治版說郛를 臺本으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語彙形態論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335項目的 語辭들은 편의상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1. 解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또는 학자마다 異見이 있는 것).
2. 解讀이 이루어진 것.
  - 가) 後期中世國語(固有語)와 일치하는 것.
  - 나) 同一한 漢字로 寫音한 것.
  - 다) 漢字語로 推定되는 것.

크게 보면 위와같이 4部類가 되는데 論議하기 쉬운 (2나)와 (2다)에 속한 것부터 檢討하기로 하자.

우선 同一한 漢字로 寫音한 (2나)에는 다음의 48單語 41項目이 해당된다.

千, 萬, 年, 春, 夏, 秋, 冬, 東, 西, 南, 北, 田, 海, 江, 溪, 泉, 鶴, 羊, 鹿, 毛, 角, 蛇, 蠅, 人, 主, 心, 茶, 銅, 絲, 錦, 袍, 裙, 繡, 青, 黑, 赤, 緋, 印, 車, 牀, 瓶, 墨, 鞭, 轡, 旗, 生, 死, 幪頭.

幪頭를 除外하면 모두 單音節語라는 점이 注目된다. 이들 單音節의 낱말이 과연 日常의 言語生活에서 獨立인 낱말행세를 하였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現代語에서는 단지 千, 萬, 年, 東, 西, 南, 北, 江, 鶴, 羊, 角, 茶, 銅, 繡, 車, 牀, 瓶, 墨, 旗 등 19개 낱말만이 獨立인 낱말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現代語에 영향을 받은 偏見이라고 보아야 하며, 12世紀初 계림유사 편찬 당시에는 春, 夏, 秋, 冬, 鹿, 蛇, 袍, 裙, 青, 赤, 生, 死등도 독립적인 낱말로 廣範하게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아마도 이들 漢字의 宋音과 高麗音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도 計算에 넣어야 할 것이다.<sup>2)</sup>

다음으로 (2다)에 속하는 漢字語들이다.

雷(天動), 鬼(幾心), 神(神通), 佛(孛), 仙人(遷), 上(頂), 下(底), 漆(黃漆), 吏(主事), 兵(軍), 僧(福田), 遊子(浮浪人), 帽子(幅), 頭巾(土捲), 帶(腰帶), 紅(眞紅), 卓子(食床), 燭(火炬), 合(合子), 盤子(盤), 臺盤(臺盤), 櫟(櫟至), 箸(折), 沙羅(戍羅 敖耶), 劍(長刀).

위의 25個 낱말들은 대체로 寫音된 漢字가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여전히 漢字語임을 나타내는 것들이다. “雷曰天動”에서는 “雷”가 “天動”이라는 高麗式 漢字語로 固定되었음을 보인다. 다른 낱말도 대부분 고려식 한자어로 바뀐 것이지만 “佛曰孛, 頭巾曰土捲”의 경우는 同一한 漢字로 寫音해도 좋을 것인데 轉寫者의 發音感覺이 같은 글자를 써서 寫音하기에는 不適合하다고 생각되어 가장 고려음에 가깝게 표현한 결과가 그렇게 다른 글자를 選擇한 것으로 여겨진다. “上曰頂 下曰底”라 한 것은 上下의 特殊한 意味

2) 이들 漢字語가운데에는 疑心나는 部分이 없지 않다. 姜信沅(1980. 10)에는 田, 江, 泉, 毛, 蛇 등을 文獻記錄의 轉字例로 指目하였다. 한편 李基文(1972. 10)에는 豆曰太, 升曰刀 두 예를 “콩”과 “되”를 表記한 吏讀俗字임을 指摘하여 鷄林類事가 순수한 口語採集이 아님을 立證하였다.

領域을 指稱한 것이나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斷定하기가 힘들다. “僧曰福田”은 아마도 僧에 대한 隱喻的 表現이 一般화된 例가 아닌가 싶다. “箸曰折, 沙羅曰戍羅”의 경우는 漢字語라기보다는 宋代 또는 그 以前 中國語의 借用語라고 보는 것이 더 온당할 듯하다. “沙羅(소라 : 그릇의 일종)를 다른 漢字語와 同列에 놓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위에 言及한 (2나) (2다)에 속한 낱말은 66項目에 73個의 낱말이다. 이것은 355項目의 16%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잠시 高麗 前期가 어떻게 中國文化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定着시켜 왔는가를 살펴볼 필요를 느낀다.

고려전기는 대외적으로 북방의 여러 異民族과의 끊임없는 정치·군사적 충돌을 겪은 시기였다. 아주 이른 시기부터 중국 漢族과의 접촉으로 漢字·漢文에 대한 인식은 공고하게 확립되어 있었으며 더 나아가 漢族이 세운 역사상의 여러 나라에 대한 事大慕華의 氣風은 羅唐聯合以來 뿌리깊은 전통으로 굳어가고 있었다. 中國과의 그러한 文化的 政治的 友好關係는 滿州지역에서 변화무쌍한 興亡盛衰의 파노라마를 펼친 다른 異民族들에게 더욱 苛酷한 敵對關係를 갖게 하는 要因으로 작용하였다. 고려는 말갈, 글안 동여진 등의 침입에 끈질기게 항거하였다. 그 항거의 과정에서 고려는 그들 北方民族과 빈번한 軍事的 接觸을 벌이기는 하지만 그들과 文化的 交流를 가졌다는 事例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은 高麗 前期에 그 당시의 北方民族 言語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軍事外交의 關係 이상으로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文化·社會的 交流가 形成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들 言語를 外來語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이다. 물론 成宗 14년(995 A.D.)에 童子 열사람을 글안에 파견하여 글안어를 학습시킨 事例같은 것이 없지 않았으나 이것은 순전히 군사외교적인 사건에 그치고 일상의 言語生活에 글안어가 간여하였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에 中國측과의 文化的 交流는 加速化되었다. 後周評使 雙冀가 고려에 들어와 벼슬하면서 科擧制度가 실시된 이후(光宗 9년 958 A.D.) 고려의 중국문화에 대한 熱意는 더욱 深化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宋나라와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確認된다. 光宗 때에 宋에 使臣을 파견하여 方物을 보내고 宋의 年號인 建德을 사용하며(光宗 14년 963 A.D.), 고려사람 金行成이 宋나라 國子監에 입학하여 及弟하는 일도 있었다(977 A.D.). 그러나 글안과는 여전히 敵對關係를 갖고 姜邯瓚에 의해 글안병을 격퇴하는 戰果를 올리기까지 한다. 그러면서도 宋나라와의 友好關係는 더욱 돈독하게 유지된다. 顯宗 18년(1027 A.D.)에는 宋나라 사람이 書冊 500餘卷을 高麗에 가져다 바치는 일도 있었고 때로는 宋나라 商人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일까지 있었다(1055 A.D.). 宋나라에서 고려에 歸化한 張琰이란 사람에게는 벼슬을 내려 우대하였고(1057 A.D.) 宋나라 使臣들에게는 安興亭을 설치하여 특별대접을 하였다(1077 A.D.). 심지어 임금의 동생이 宋나라를 방문하고, 임금이 행차할 때에 그 앞에 仁王般若經을 받들고 나아가게 하는 것까지 宋나라의 制度를 따르기에 이른다. 이무렵

開京에는 宋나라에서 찾아온 商人과 官吏들이 언제나 상당수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社會·文化的 背景은 日常言語에서 20% 안팎의 語彙가 漢字語로 굳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다음에는 (2가)에 속하는 語彙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天(漢棟 하늘) 日(契 히) 月(妣 뉘) 雲(屈林 구름) 風(李纜 바람) 雪(嗽 눈) 雨(霏微 비) 雪下(嗽址 눈디-) 霜露(率 서리) 一(河屯 하나ㅎ 흥든) 二(途李 둘ㅎ 두블) 三(酒 세ㅎ) 四(迺네ㅎ) 五(打戊 다투) 六(逸戊 여섯) 七(一急 닐곱) 八(逸蒼 여덟) 九(鴉好 아홉) 十(噫 열ㅎ) 二十(戔戌 스물ㅎ) 三十(實漢 열흔) 四十(麻兩 마흔) 五十(舜 닐) 六十(逸舜 여섯) 七十(一訓 닐흔) 八十(逸頓 여든) 九十(鴉順 아흔) 百(醜 온) 旦(阿慘 아침) 午(稔宰 낮이 나치) 晡(占棟 전날) 前日(記載 그제) 昨日(訖載 그제) (烏棟 오늘) 明日(轄載 후제) 後日(母魯 모리) 約明日至(轄○烏受勢 후제오소서) 土(轄希 흙) 火(李 불) 山(每 피ㅎ) 石(突 돌ㅎ) 水(沒 물) 井(烏沒 우물) 草(戔 숲, 싹) 花(骨 꽃) 木(南記 남기) 竹(帶 더) 栗(監 밤) 桃(技棟 복성) 松(鮐子南 잣나무) 胡桃(渴來 마래) 枝(坎 갈) 梨(敗 비) 林檎(悶子訖 문비) 雄(鶻試 수ㅎ) 雌(暗 암ㅎ) 雞(喙 닭) 鶩(漢賽 한새) 雉(雉賽 치새, 쟁새) 鵠(彌陀里 비두리) 鵠(渴則寄 가치) 鴉(柯馬鬼 가마귀) 雁(哭利弓幾 그러귀) 隼(笑利象幾 소로기) 雀(賽 새) 虎(監 蒲南切 범) 牛(曉 소) 猪(突 돌) 犬(家穉 가히) 猫(鬼尼 고니/괴) 鼠(窺 귀) 馬(末 뉘) 乘馬(轄打 걸터트다) 皮(渴翅 갖/갓) 龍(彌 미르) 魚(水脫 슈달) 蟹(慨 게) 螺(蓋慨 게게) 蠃(梲 니) 蛋(批勒 버룩) 客(孫命 손님) 士(進, 寺儘切 선비) 工匠(把指 바지) 農(宰把指 지바지) 丐(丐剝 것바지) 倡(水尺 자수ㅎ) 盜(婆兒 바수/버서) 倡人之子(故作 고자) 樂工(故作 고자) 稱我(能 나, 내) 問你汝誰何(轄箇 누고/누구) 祖(漢 Y 秘 한아버) 父(Y 秘 아버지) 母(Y 彌 어머니) 伯叔(Y 查秘 아자비) 伯叔母(Y 子彌 아즈미) 男子(沙南 스나히) 弟(Y 兒 아수) 姝(Y 慈 아수) 女子(漢吟 하님) 自稱其夫(沙會 사회) 妻(漢吟 하님) 男兒(Y 妣 아돌) 女兒(寶妣 뉘) 父呼其子(Y 加 아가) 孫(Y 村 Y 妣 아촌아돌) 舅(漢 Y 秘 한아버) 姑(漢 Y 彌 한어미) 婦(Y 村 아촌) 姨(子彌 아즈미) 頭(麻帝 마디/마리) 面(嗽棟 닛, 너치) 眉(嗽涉 눈썹) 眼(嗽 눈) 耳(愧 귀) 口(昆 입) 齒(你 니) 舌(竭 혀) 面美(捺翅朝勳 너치도훈) 面醜(捺翅沒朝勳 너치폰도훈) 身(門 몸) 胸(軻○ 가슴) 背(腿馬末 등덜) 腹(擺 비) 手(遜 손) 足(發 발) 肥(鹽骨眞, 鹽骨易成 엄글진, 엄글이서) 瘦(安里鹽骨眞 아니엄글진) 洗手(遜時蛇 손시서) 凡洗濯(시서) 白米(漢菩薩 흰쌀) 粟(田菩薩 줍쌀 조쌀) 麥(密 밀ㅎ) 穀(麻帝骨 마디곡) 酒(酥李 수블) 醋(生根 섯것) 醬(密祖 머주) 鹽(蘇甘 소곰) 油(畿林 기름) 魚肉(姑記 고기) 飮(朴業 밥) 飲酒(酥李麻蛇 수블마서) 凡飲(麻蛇 마서) 煖酒(蘇李打里 수블다리-) 凡安排(打里 다리-) 勸客飲盡食(打馬此 다모즈-) 醉(蘇李追 수블취-) 不善飲(本道安理麻蛇 본더 아니마서) 熱水(泥根沒 니근덜) 冷水(時根沒 시근덜) 飽(擺咱 비츠-) 飢(擺咱安理 비츠아니-) 金(那論歲 누런쇠) 珠(區戍 구슬) 銀(漢歲 흰쇠) 麻(三 삼) 絹(及 깃) 布(背 비) 苧(毛施 모시) 苧布(毛施背 모시비) 阜衫(軻門 거문) 被(泥不 니블) 袴(珂背 마뉘/마외/고외) 裊(安海珂背 안해 마뉘) 靴(盛 신) 襪(背成 보선) 針(板棟 바늘) 女子勒帶(實帶 실 락) 綿(實 실) 白(漢 흰) 黃(那論 누런) 紫(質 단비) 染(沒涕里 물드러-) 穉(雌李 저블/저울) 尺(作 차ㅎ) 升(刀 되) 斗(抹 말) 船(擺 비) 席薦(質薦 지쥬) 椅子(駝馬 도마) 簾(箔音發 발) 下簾(箔耻具囉 발티거라) 匱(枯李 고틀/골) 傘(聚笠 슈름) 扇(李采 부채) 笠(蓋音渴 갓) 梳(苾 밧) 簪(頻希 빈혀) 齒刷(養支 양지) 銀瓶(蘇乳 소이) 甕(宰 손) 盂(大耶 대야) 匙(戔 술) 碩(皮盧 버로) 刀子(割 갈) 剪刀(割子蓋 쟁개/쟁애/마새) 鞍(末鞍 말안장) 鼓(濮 뉘) 弓(活 활) 箭(蘆 살) 斧(烏子蓋 오지개) 炭(蘇成 숯) 柴(李南木 불나무) 索(那노朴마) 索縛(那沒香 노뉘)

거) 射(活索 활쏘-) 讀書(乞鋪 글보-) 寫字(乞核薩 글그술-) 畫(乞林 그림) 寢(作之 자지) 與(你之 니지, 날-) 坐(阿則家囉 안즈거라) 行(欺臨 거름) 走(連打 년다) 來(烏囉 오라) 去(匿家入囉 니거지라) 客至(孫烏囉 손오라) 有客(孫集移室 손집이실) 客入(屋裏坐少時 오르주쇼서) 語話(替里受勢 드러쇼서) 擊考(室打里 시달리-) 借物(皮離受勢 비리쇼서) 問此何物(沒審 므슴) 乞物(念受勢 -쇼서) 問物多少(密翅易成 머치이서) 凡呼取物(都囉 도라) 相別(羅載少時 여회쇼서) 凡事之畢(得 다) 老(力斤 늙은) 少(亞退 아촌) 孝(薩囉 사라/살아) 亡(朱幾 주거) 有(多實 이실) 無(烏不實 업슬) 大(黑根 호근/큰) 小(胡根 호근) 多(曩何支 혼하디) 高(那奔 노쁜) 低(捺則 녹죽) 深(及欣 기픈) 淺(泥底 너티)

위의 245項目은 15世紀 訓民正音 創制期를 거쳐 現代語에까지 綿綿히 이어오는 語彙와 완전히 同一한 것임을 立證할 뿐아니라 全體項目의 70%나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鷄林類事가 편찬된 12世紀에 이르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韓國語의 共通語가 開城을 中心으로 하여 공고하게 確立되었음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흔히 高麗의 建國은 後三國時代를 終結시키고 韓半島 안에서 최초로 名實相符한 統一國家를 形成했다고 하는 政治史的 意義가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政治史的 側面과 아울러 韓半島의 中央에 자리잡은 開城의 言語가 高麗共通語의 機能을 함으로써 言語의 統一도 成就하였다는 言語史的 意義도看過할 수 없음을 確證하게 된다. 355項目의 基礎語彙에서 70%에 해당하는 245項目이 現代語와 直結되었다고 하는 것은 言語의 統一이 얼마나 幅넓은 것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성을 중심한 고려공통어는 그때까지 유일한 文化語, 公用語의 기능을 담당하였던 新羅共通語 곧 慶州語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0世紀初 開城지방은 文化的 基盤이 없었으므로 모든 文化活動은 前時代의 學問的 藝術的 政治的 中心이었던 慶州의 慣行을 이어받는 형식을 취했으리라는 것도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그러한 慶州語가 어느 정도나 開城語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확인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證據資料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開城地方은 과거 三國時代에 高句麗의 옛터였으므로 開城方言은 高句麗語의 특성을 강하게 반영하는 北方系 言語를 바탕에 지니고 있었는데 거기에 文化的 優越性을 지닌 慶州語가 들어와 섞이는 현상이 일어났으리라는 推測을 할 수 있을 뿐이다.<sup>3)</sup> 요컨대 高麗의 建國은 開城語를 底層으로하고 慶州語를 받아들여 開城中心의 한반도 공통어를 定着시킨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한 言語資料로 위에 列擧한 245項目이 注目된다.

다음으로 鷄林類事 語彙가운데 아직도 解讀이 이루어지지 않은 40餘項目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들 項目가운데 어떤 것은 아마 永遠한 迷宮속에 묻혀버릴 것도 있을지 모른다. 12世紀를 下端으로 하여 死滅해 버리고 그것과 連繫되는 言語資料가 不幸하게도 남아있지 않을 경우, 그 語辭는 解讀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또 萬一 어떤 項目의 轉寫

3) 이러한 論議는 定說化한 李基文(1972, 85-87)에 따른 것이다.

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어서<sup>4)</sup> 그 잘못이 바로잡히지 않는 한, 해결할 길이 막연한 경우도 있다. 여기에 덧붙여 한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孫穆이 직접 聽取收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開京에서 慣行하던 文獻記錄을 轉寫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點檢해 보는 일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前提로 하고 몇몇개의 項目이 論者들의 想像力을 刺戟하였다.

우리도 여기에 조심스럽게 前人未踏의 想像力을 한 두 項目에 대하여 펼쳐보기로 한다.

먼저 “電曰閃”과 “霧曰蒙”을 생각해 보자. “電曰閃”은 “閃(섬)”이 현대어 “번개”와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難解한 項目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러나 만일에 “섬”이라고 하는 音相 形態가 現代語에서 발견된다면, 비록 그것이 독립적인 낱말로 쓰이지는 않더라도, 그것을 12世紀에 嚴存했던 낱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현대어에 “섬득하다”는 낱말을 갖고 있고, 이것은 方言形態로 “섬찍하다. 섬찍하다”등의 異形態가 있다. 이들 낱말은 갑작스럽게 놀랍거나 무서운 느낌이 드는 것을 표현한다. 그리고 “섬-”이라는 첫음절을 공통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섬-”이 번개를 나타내는 낱말로서 “電曰閃”의 그 “閃”과 관련이 없을 것인가? “閃”의 새김에 “번쩍번쩍할”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閃”—“섬득”—“번쩍”—“번개”가 서로 관련이 있는 낱말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것인가?<sup>5)</sup>

“霧曰蒙”의 경우도 현대어에서 “蒙(몽)”의 化石形을 찾아낼 수 있다. “몽계구름”에서 “몽-”이 바로 그것이다. 이 “몽계”가 “안개” “번개” “능개비” 등의 낱말과 나란히 “개/-계”라는 접미사를 거느렸다고 볼 수만 있다면 “몽계”의 “몽-”은 “霧曰蒙”의 바로 그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銀瓶曰蘊也”도 “소이, 소용”이라는 方言形態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미 難解語에서 벗어 났으며<sup>6)</sup> “男兒亦曰同婆記”와 “女兒亦曰古召曹兒”도 각각 “-바기”와 “조이(召史)”로 추정하려는 견해가 생겨서<sup>7)</sup> 지금까지 해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낱말들도 朝鮮時代 내지 現代語속에 그 殘影을 남기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sup>8)</sup>

## 2.2. 高麗 後期는 高麗王朝가 北方民族에게 시달리면서 民族的 自主性을 유지하기 위해

4) 그 대표적인 예가 日曰姐, 月曰契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서로 엇바뀐 것으로 보아 日曰契(黑隘切), 月曰姐로 읽자는 데 대부분의 論者들이 合議하고 있다. 陳泰夏(1974)에서는 訛誤를 修正함으로써 現代語와 直結되는 몇몇 語辭들을 成功的으로 解讀하였다. 가령 笑曰胡臨, 哭曰胡住도 日月의 경우처럼 엇바뀐 것으로 보아 笑曰 胡住(우슴) 哭曰胡臨(우름)으로 推定하였다

5) 진작에 陳泰夏(1974)에서도 “閃”을 漢字語로 推定한 적이 있다.

6) 崔鶴根(1978), 國語方言에 나타난 稀貴語, 冠岳語文 3. 참조.

7) 朴喜淑(1988), 鷄林類事高麗方言의 “婆記”와 “曹兒”에 대하여 蘭臺李應百教授停年退任紀念論文集  
8) 다른 한편으로는 未解讀의 項目들을 12세기 당시 開城方言의 底層을 형성하고 있던 高句麗語의 殘影으로 생각하고 만주어나 몽고어와의 비교를 통하여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分野의 노력은 明白한 對應을 수립하지 못하는 限 推論의 단계를 넘어설수 없다는 弱點이 있다.

(참조) 姜吉云(1992) 韓國語系統論(下) p. 21, 螢雪出版社.

安炳浩(1991) 原朝鮮語と アルタイ諸言語. アシアフ・ラム No 4, 大阪經濟法科大學.

여 안간힘을 쓴 고달픈 시대에 해당한다. 만주족이 세운 金나라와 글안, 몽고족의 元 등 北方의 여러나라는 고려와 교린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기회만 있으면 南侵을 일삼았고, 13세기에 접어들면서는 强盛해진 몽고가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해오다가 급기야는 侵入을 감행하여, 고려조정은 江華島로 都邑을 옮기어 피어린 抗爭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몽고에 굴복하여 100여년간 몽고에 지배를 받는 隸屬狀態에 머물렀었다. 몽고장수 撒禮塔이 南侵하여 鐵州, 平州를 攻略한 것이 高宗 18년(1231 A.D.)이요, 元의 年號사용을 멈춘 것이 恭愍王 5년(1356 A.D.)이니 몽고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기간이 작으만치 125년에 이른다. 元의 全盛期에는 高麗太子가 元나라 서울, 北京에 머물러 있었고, 임금의 승하하면 元나라 公主와 결혼하여, 그 元나라 夫人을 데리고 새로이 임금이 되어 개경으로 부임하는 것이 관례가 되다시피 하였었다. 그무렵 고려의 임금은 모두 ‘忠’字로 시작되는 元나라의 諡號를 받았는데, 25代 忠烈王으로부터 30代 忠定王, 그리고 31代 恭愍王에 이르기까지 일곱명에 이르는 임금이 모두 元나라 서울에 인질로 잡혀가 살다가 몽고말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 돌아온 분들이다. 그들 중 忠烈王, 忠宣王, 忠肅王, 忠惠王, 恭愍王 다섯 분은 元나라 公主를 王妃로 맞이하였다.

이러한 歷史的 事實들은 13·14세기 高麗의 言語가 몽고어를 새로운 외래어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 국어사의 관점에서 보면 國語語彙가 固有語와 漢字語라는 二重體系를 유지하다가 고려 후기에 이르러 몽고어를 외래어로 받아들임으로써 드디어 國語語彙가 固有語, 漢字語, (蒙古)外來語의 三重體系를 형성한 시기가 되었음을 뜻한다. 임금이나 태자가 元나라 王室에 머물러 살았다는 것은 王族 한두 사람의 몽고어 습득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들에게 달려있는 많은 수행인이 함께 생활하였을 것이요, 거기에 호종하는 貴族 및 知識人의 활동도 전제되지 않을 수 없다.<sup>9)</sup>

이와같은 고려 後期的 社會·文化的 諸般 雰圍氣에서 상당량의 몽고어가 유행어의 성격을 띠고 통용되었을 것이나, 그것들은 당시의 文獻에는 傳하는 것이 없다. 朝鮮王朝에 들어와 편찬된 高麗史, 龍飛御天歌, 翻譯朴通事, 訓蒙字會 등에 산만하게 호터져 있을 뿐이다. 이들 몽고어로부터 들어온 外來語는 흥미롭게도 특정한 語彙領域에 몰려 있다. 그것들은 주로 말(馬) 매(鷹鵠) 및 軍事用語들이다. 전통적인 文化用語들은 한자어를 그대로 몽고사회에서도 사용하였을 것이므로 몽고어로서 고려사회에 通用될 수 있었던 것은 遊牧民族 특유의 要素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것은 말·매를 중심으로한 軍事用語에 集中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들 語彙는 現代國語에서는 실용성을 상실하고 대부분 死語의 신세를 면치 못하였으나 그것은 高麗後期的 社會相을 반영하는 證據語의 구실을 하고 있다.

9) 이 부분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李基文(1991), 國語語彙史研究 第9章~第13章(pp. 123-187)에 미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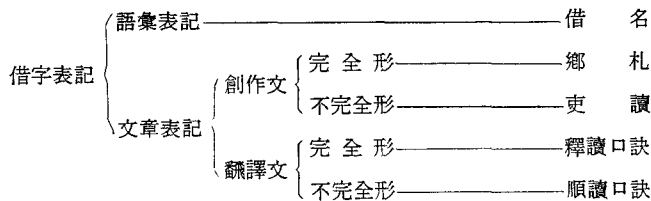
## 3. 高麗時代의 文字

3.1. 고려시대에 사용된 文字는 漢字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 漢字의 運用의 觀點에서 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결국 두 가지 文字를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正統漢字이고 다른 하나는 借用漢字이다. 물론 이러한 文字使用의 傳統은 統一新羅時代에 이미 자리잡은 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긴 하나, 앞선 시기보다는 훨씬 活用의 振幅이 넓었고 또 깊었다.

첫번째 正統漢字는 中國사람들과 똑같이 中國語 古典文法의 틀에 맞추어 漢文을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이고, 두번째 借用漢字는 漢字를 이용하여 우리말을 적는 表記體系이다. 이 나중 文字를 漢字借用表記體系라고 불러왔다. 우리나라 文字史의 觀點에서 論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漢字借用表記體系이다.

漢字借用表記體系는 다시 文章表記와 語彙表記로 나뉜다. 語彙表記는 “借名”이라는 한 가지 뿐인데 借字表記의 初期段階에서 사람이름, 땅이름, 나라이름, 벼슬이름 등 여러가지 固有名詞를 적었던 表記資料를 가리킨다. 이 借名은 固有名詞이기 때문에 당연히 漢文文章 속에도 使用되었고, 吏讀에도 사용되었다. 文章表記는 중국의 책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적은 글 즉 번역문에 활용하는 것과, 순수한 우리말을 적은 것 즉 創作文으로 나뉜다. 創作文은 다시 크게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詩歌를 중심으로 한 文藝創作文이요, 또 하나는 公文書를 중심으로 한 각종 實用文이다. 앞의 것은 鄉札이라고 하고 나중 것은 吏讀라고 불러왔다. 鄉札이 우리나라 初期詩歌인 鄉歌를 적은 表記體系에 局限하는데 反하여 吏讀는 鍾, 塔, 碑 등에 鑄造하거나 새겨 쓴 金石文으로도 전해지고 各種 公文書로도 적혀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翻譯文은 中國式 漢文(主로 經書)에 우리말 ㅅ를 붙여서 우리말로 읽을 수 있게 하는 方案을 가리킨다. 일찍이 新羅時代 薛聰에 의하여 開發 整理되어 高麗時代까지 면면히 그 脈을 이어왔는데, 이때에 漢文原文에 添加된 우리말 ㅅ를 흔히 口訣이라 하였고 이 口訣이 들어있는 번역문을 口訣文이라 하였다.

위에 논의한 내용을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sup>10)</sup>



10) 이 표는 李丞宰(1989.10)를 따른 것임.



이 표에 따르면 高麗時代 文字는 正統漢字이외에 借名, 鄉札, 吏讀, 口訣의 네 가지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借名은 新羅時代에 활발했던 것이지만 고려시대에 오면 相當部分의 固有名詞가 漢字化함으로써 쇠퇴의 길을 걷는다. 그러나 奴婢文書의 奴婢名 같은 것은 여전히 借名이 사용되었다. 이 慣行은 朝鮮朝에까지 이어진다.

高麗時代 鄉札 자료로는 均如大師의 普賢十願歌 11首와 睿宗의 悼二將歌 1首都合 12首이다. 鄉歌의 創作이 僧侶나 帝王에 의하여 持續된 것으로 보아 特殊階層의 知的 活動에 머물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漢字를 이용한 鄉札 表記能力이 一部階層에 圓熟해지는 것과 比例하여 漢文으로 된 佛敎經典과 儒敎經典의 理解도 깊어졌고 精通한문으로 글을 짓는 사람도 늘어났다. 崔行歸가 普賢十願歌를 모두 漢文으로 번역하고 거기에 덧붙여 번역의 이유를 밝힌 글을 보면 이미 이 당시 사람들이 正統漢字만을 가장 이상적인 言語, 곧 “國際적으로 公認된 模範的인 意思疏通手段”이라고 생각했으며 우리나라 말은 方言이라고 하는 通念이 확립되었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sup>11)</sup> 그 당시의 國際的인 與件으로 보아서는 漢文의 國際性과 效用性을 강조하는 일종의 漢文優越主義가 時代的인 風潮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말을 表記해야 할 必要性과 表記하고자 하는 欲求는 억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高麗時代는 正統漢字의 普遍性과 借用漢字의 特殊性이 文字生活에 共存했던 期間이라고 할 수 있다. 거듭하여 말하거니와 借用漢字의 特殊性이 正統漢字의 普遍性에 맞설 수 있었던 까닭은 우리나라 말도 비록 方言이라고 생각하는 했지만, 그것을 正確하게 表記해야 할 正當性이 認定되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결국 鄉札, 吏讀, 口訣의 形式을 빌어 우리말의 文法形態素를 表記하는 것으로 表出된다. 물론 語彙類의 表記가 문제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語彙類에는 助詞나 語尾 등 文法形態素보다는 訓讀으로 읽어야 하는 부분이 相對적으로 많기 때문에 讀音으로 읽는 부분이 많은 文法形

11) 참고로 崔行歸의 譯歌功德分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詩는 漢文으로 되었으므로 五言七字를 같고 뉘으면 되는 것이요, 노래는 우리말을 배열하는 것이므로 三句六名을 잘 다듬으면 되는 것이다. 소리를 논하기로 한다면 동쪽별과 서쪽별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중국과 우리나라가 쉽게 구별이 된다고 하겠고 이치를 따지기로 한다면 창과 방패가 서로 맞선 것과 같아서 강하고 약한 것을 구별하기 어렵다. 비록 글재주가 서로 맞설만하다고 하나 뜻풀이는 같은 자리에 돌아움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시나 우리나라의 향가가 모두 독특한 특징이 있으니 좋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다만 한탄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재주 있는 선비와 이름난 벼슬아치들은 중국의 唐詩를 이해하고 읊을 수 있으나 중국의 德望있는 선비와 스님들은 우리나라 鄉歌를 알 길이 없다. 중국 글은 하늘에 구름이 잘 짜여진 것 같아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쉽게 읽을 수 있으나 향찰은 비록 漢字를 적어 놓았다 할지라도 산스크리트 文字를 연이어 놓은 듯하여 중국사람은 알아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梁나라 宋나라의 구슬같은 작품은 끊임없이 우리나라로 흘러들어 왔으나 신라의 비단같은 문학 작품은 서쪽으로 전파되는 것이 거의 없었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제한된 통용에 그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공자님이 이땅에 살려고 하였으나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설총이 경전을 억지로 우리말로 바꾸려고 하다가 취꼬리만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라 할 것인가?”

態素 表記의 경우보다는 漢字의 音借機能이 弱化되기 때문이다.<sup>12)</sup>

3.2. 그러면 高麗時代 吏讀에서는 우리말로 表記된 語彙類 및 文法形態素에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概觀해 보기로 하자. 다음은 李丞宰(1992)의 研究成果一部를 整理한 것이다(괄호안의 것은 15세기 이후 한글표기의 對應形임).

名詞類：由(견츠) 時(뻬, 뻬) 今(얼) 貞(죇) 後(뒤) 事(일) 所(마) 次(츠) 喻(디) 等(똥)  
節(디워) 味(맛) 不喻, 不多, 不得, 毛冬(안디, 아닌지) 向事(아안일) 向教事(아이산일)  
向入(안드러) 向前(안전) 且驛(아츨넝) 一旦(하트아츨) 捧上(받자) 水梁(므들) 山枝  
(뫼갓) 次知(츠디) 件記(블기) 作文(질문) 交周(엠편러, 쇼쥬)

動詞類：無(어오-, 없-) 有, 在(이시-, 잇-) 餘(남-) 想(너기-) 然(그러하-) 進(남-) 問(문-)  
聞(듣-) 同, 如(글-) 成(일-, 이룩-) 승(이룩-, 시기-) 邀, 陪(모시-) 立(세-) 審(슬  
피-) 斜(뵈-) 了(뫼-) 望(바라-) 仰(올월-) 實(실-) 除(덜-) 用(쓰-) 仍(지출-) 追  
(쫓-) 白(숄-) 教(이시-, 이산)

副詞類：唯只(오직) 並只(다모기, 다모기) 最只(안즈기) 必于(비록) 這這(又又) 科科(츠츠)  
日日以(나날이) 初亦(처음) 仔細亦(자세히) 更良(가서아) 逢音(마즐, 마침) 並以(아오  
로) 加于(더욱) 如一亦(흔얼아티) 爲等如(하트러, 통틀어)

助詞類：亦(-쓰너, -이) 戈只(-익기) 矣(-의, -에) 叱(-스) 乙(-르, -을) 亦中(-여히) 中, 良中  
(-아히) 以(-로) 果(-와/-과) 元(비록, -브터) 己只(-드록, -즈지) 置, 投(-도) 投(-꾼)  
乙良(-올랑) 沙(-아) 乃(-나)

語尾類：賜(-으시/으셔) 白(-습-) 內(-느-, -은/-는) 如(-더-) 去(-거-) 遣(-고), 弥(-며) 良  
(-아/-어) 沙(-아) 丁(-언명) 亦(-이, -히) 兮(-히) 于(-오/-우) 乙(-닐/-늘) 而亦  
(-마른) 在乙(-견을, -은테, -으니) 去乙(-거늘) 如乙(-더늘) 在亦中(-견여히) 在如中  
(-견드히) 絃如(-시우러) 如可(-다가) 音可(-음직) 在以(-이므로) 去乃(-거나) 良置  
(-아도/-어도) 良余(-아금, -아서/-어서) 良結(-아져) 良只(-악/-역) 只爲(-기슴, 하도  
록) 於爲, 乙爲(-늘삼, -하도록) 等乙(-들) 等以(-들로) 乎矣(-호터) 齊(-제) 之(-다)  
如(-다, -라) 乎(-은) 乙(-음/-음) 音(-음/-음)

위에 열거한 吏讀을 보면 비록 不完全한 점이 없지 않으나 그 당시에 이런 글을 쓴 사람  
들은 우리말을 기록함에 있어 특별한 불편없이 원만하게 意思傳達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이두표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하나는 이미 確  
立된 表記慣行에 따라 固定的인 常套語가 생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좀더 精巧한 표현을 강  
구하여 語尾나 格助詞의 表記가 더욱 精密해진 것이다. 이 두 가지 모순된 발전이 吏讀가  
지닌 文字上의 特性이며 制約이라 하겠다. 名詞나 動詞의 語幹表記는 訓音으로 읽으면서  
그 訓義를 살리는 方向으로 이용됨에 反하여 副詞의 경우에는 先行字는 訓義를 살린 訓音  
으로 읽되 末端字는 先行訓音의 末音添記로 읽힘으로써 점차 讀音의 純粹音借의 機能이 늘  
어남을 보인다. 즉 “唯只”의 경우 “唯”의 訓音이 “오직”인데 그 音節末子音 “기”를 “只”가

12) 여기에서 우리는 訓音과 讀音의 差異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종래에 흔히 訓과 音으로 구별했던  
것을 漢字의 音借機能의 次元에서 다시 이름 붙여 본 것이다. 즉, “天”을 “하늘 천”이라 할 때  
“하늘”로 읽으면 “訓音”이고 “천”으로 읽으면 “讀音”이 된다.

反復補充하는 表記形態를 취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音借表記는 鄉札에서도 使用되었던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助詞나 語尾類에서는 副詞의 경우보다도 더욱 活發한 音借機能의 擴大가 나타난다. 이것은 助詞 및 語尾類가 文法形態素들이기 때문에 그 本性上 訓義를 이용한 訓音借는 存在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助詞나 語尾를 表記하는데 쓰인 音借字들은 순수한 表音·音節文字 또는 表音·音節末音文字로 한걸음 다가선다. 가령 “可, 乃, 如” 등은 “가, 나, 다,”라는 音節文字가 된 것이고, “乙, 丙, 音, 叱” 등은 “-리, -ㄴ, -口, -스”을 表記하는 音節末音文字의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에서 吏讀가 우리말을 표기하면서 表音文字로서의 變身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口訣에 가면 좀더 發展된 形態를 취한다.

3.3. 앞서서도 略述한 바와 같이 원래 口訣은 중국에서 받아들인 불교와 유교의 漢文經典을 우리말로 바꾸는 翻譯術의 表記方式이라고 할 수 있다. 三國時代以來 漢文原典이 우리 祖上들에게 解讀되었을 때, 그 解讀의 結果는 자연스런 우리말 우리글로 바뀐 번역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번역문의 實體가 없기 때문에 薛聰의 이른바 六經訓解의 明經術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는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釋讀口訣이 적힌 舊譯仁王經이 발견된 후로 그 明經術의 實相을 짐작해 볼 수 있게 되었다.<sup>13)</sup> 그러므로 釋讀口訣의 傳統은 薛聰代以來 綿綿히 이어져 왔을 것이나 現存한 資料는 舊譯仁王經과 最近에 새로이 發見된 瑜伽師地論이 있을 뿐이다.<sup>14)</sup>

그런데 이들 釋讀口訣資料에서 注目해야 할 것은 그 口訣字가 漢字의 略體字로 발전하였다는 사실이다. 漢文을 해석하는 過程에서 발생하는 우리말 吐를 漢字(口訣字)로 表記할 때에 처음에는 완전한 漢字를 충실하게 사용하였을 것이지만 그것은 原典의 原書가 적힌 行間에 적어 넣어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略體로 바뀐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略體口訣의 開發은 當代의 利用者들은 전혀 意識하지 못하였으나 表音性 音節文字 또는 (單)音素文字의 創案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漢字로부터 나왔으나 이미 漢字로는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文字가 되었다.<sup>15)</sup>

舊譯仁王經은 12世紀의 것으로 推定되고 瑜伽師地論은 13世紀의 것으로 推定된다. 다음은 舊譯仁王經에 나온 略體口訣字들이다(劃數가 적은 것부터 羅列한다. 괄호안에는 推定되는 原字와 音價이다).

13) 이 分野에 關한 仔細한 論議는 沈在箕(1975)以來 一聯의 報告書에 미룬다.

14) 瑜伽師地論은 現在 南豊鎰 교수가 所藏하고 있는데 逆讀表示의 滴點이 있는 것과 原文左右에 口訣字가 적힌 점등 基本的으로는 舊譯仁王經과 같으나 使用한 口訣字가 약간 다르고 훨씬 單純化되었다는 인상을 준다. 南교수가 公式 發表할 것으로 期待하기에 여기서는 詳論을 피한다.

15) 漢字의 音節文字化 및 (單)音素文字化의 過程에서 한가지 留意하고 넘어가야 할 事項이 있다. 漢字書體의 多樣性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楷書體와 草書體의 互換關係는 字型의 轉移現象이 發生한다는 事實이다. 金完鎭교수가 指摘한 바에 따르면 古代借字 가운데서 尸叱只支糸珍 등은 자기乙時其希今期 등의 草書體가 다시 楷書化하는 過程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ㄱ(隱 ㄴ/은) ㅣ(多 다) の(月 ㄷ) 乙(乙 ㄹ/을) ㄴ(乎 호) ㄹ(良 아/어) ㄹ(五 오)  
 ㅂ(叱 ㅅ/ㅈ) ㄴ(示 시) ㄹ(是 이) ㄷ(亦 여) ㅅ(果·臥 과/와) ㅈ(只 ㄱ/기) ㅊ(去 ㅈ/ㅊ)  
 ㅊ(在 ㅈ) ㅊ(臥 노/누) ㅊ(中 ㅊ) 刀(刀 도) ㄹ(彌 더) 乃(乃 나) ㅊ(爲 ㅎ) 之(之 ㅈ/ㅊ)  
 以(以 로) 丁(丁 ㅈ) ㄷ(矣 터) ㅊ(所 소)  
 口(古 고) ㅈ(飛 ㅈ) ㅊ(沙 아/사) 去(去 거) 下(下 하) 干(于 우?) ㅈ(行 너) 子(孫 손)  
 尸(力·乙 ㄹ)  
 尔(彌·今 ㅈ) 立(音 ㅊ/음) ㅈ(屎 히) 毛(毛 모) 火(火 불) 巴(巴 바) 令(於 어) 禾(利 리)  
 矢(知 디) 冬(冬 동/똥) ㅈ(與·焉 여/언) 四(羅 라) 白(畝) ㅈ(第 메)  
 這(這 ㅈ)

아직도 未審한 부분이 많이 있으나 舊譯仁王經에 나온 이들 50個의 略體口訣字는 한편으로는 原文漢文과 어울려 訓音 또는 讀音으로 읽히면서 釋讀을 可能하게 함으로써 翻譯의 使命을 完遂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簡略한 字形의 表音文字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音節文字 내지 音素文字의 可能性을 열어놓았다고 생각된다. 漢文에서 六書의 하나인 假借法은 일찍 부터 漢字가 表意文字로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表音文字의 機能도 가지고 있었음을 보이는 것이지만 그 假借法은 正字의 使用을 엄격하게 지켜왔었다. 그러나 그것이 高麗時代 우리 祖上들의 釋讀口訣의 開發로 말미암아 略體로 變身하게 되었고 이것이 不完全하나마 音節文字 내지 音素文字의 原始段階를 나타내게 되었다.<sup>16)</sup> 우리는 이 단계에서 성급하게 口訣音節字와 口訣音素字가 訓民正音으로 實現되는 完美한 音素文字의 母胎가 되었다는 推論 같은 것은 하고싶지 않다. 다만 訓民正音과 같은 文字가 創制되기 전에 적어도 高麗 五百年間 釋讀口訣의 利用을 통하여 未備하나마 音節文字와 音素文字의 初步段階를 使用한 經驗이 蓄積되었다는 것을 注目하고자 한다. 舊譯仁王經에 나온 口訣字만으로도 다음과 같은 音素文字와 音節文字의 일개를 만들어 볼 수 있다.

口訣音素文字(子音系)(괄호안은 대응되는 한글字 임)

ㅈ(ㄱ) ㅊ(ㄴ) ㅂ(ㄷ, ㅅ) 乙, 尸(ㄹ) 立(ㅊ)

口訣音素文字(母音系)

ㄴ(ㅏ) ㅈ(ㅑ) ㄹ(ㅓ) 于(ㅕ) ㄹ(ㅣ)

口訣音節文字

ㅈ(여) = (여)

去(거) ㅊ(겨) ㅊ(교) ㅈ(기)

乃(나) ㅈ(너) ㅊ(노/누) ㅈ(느)

ㅣ(다) 刀(도) 矢(더) の(ㄷ) ㅈ(터) ㅈ(메)

四(라) 以(로) 禾(리)

ㅈ(머) 毛(모)

16) 이와 關聯하여 우리는 日本으로 건너간 漢字가 楷書體 및 草書體의 略字 또는 一部劃으로부터 日本의 가나(カナ)文字가 發生하였다는 사실을 記憶해야 한다.

巴(바)  
 シ(사) ケ(소) ン(시)  
 入(와) ㄱ(의) 之(위)  
 下(하) ㄴ(호) ㄷ(히) ㄹ(하) ㅌ(히)  
 丁(형) 子(손) 尔(금) 火(불) 冬(동/똥) ㄹ(연) 白(송) 這(근)

위의 口訣字 가운데서 子音系 口訣字는 이미 鄉札表記에서 末音添記(특히 純正添記)의 형태로 사용되었던 오랜 역사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시대에 오면 분명히 獨立的인 音素文字로 認識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母音系 口訣字가 獨立된 母音音素로 認識되었으리라는 確言을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音節末子音의 獨立性을 認識한 뒤에는 乃(나) | (다) 四(라) 巴(바) ㄱ(사) ㄴ(아) 下(하)에서 母音[a]를 공통으로 하고 첫소리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요 또한 中國의 聲韻學은 明白하게 聲母 韻 訓民正音體系에서 初聲을 분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口訣文字는 은연중 後代에 訓民正音 創制의 基礎가 된 音節三分法(初聲・中聲・終聲)을 內包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舊譯仁王經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釋讀口訣은 그후 瑜伽師地論에 오면 조금 더 單純해지더니 조만간 釋讀口訣이 사라지고 順讀口訣로 대체된다. 釋讀口訣의 表記方式은 原文 左右에 口訣字를 나누어 적어야 하고 逆讀의 表示로 滴點(·)을 찍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表記上의 번거로움은 漢文讀解力의 向上과 함께 語句 單位로 順讀하여 끊어 읽는 方案의 流行을 가져왔고 이것이 定着되면서 釋讀口訣은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順讀口訣資料는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 할지라도 釋讀口訣資料를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을 것이다.

13世紀 이후의 口訣資料로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文獻은 모두 順讀口訣인데, 이들 口訣字도 舊譯仁王經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音素文字 및 音節文字의 初步段階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에는 高麗末에 刊行된 文獻의 順讀口訣資料를 몇 개 檢討해 보기로 한다.

먼저 南明泉和尚頌證道歌를 살펴보자. 이 책은 1239年 鑄字本으로 알려졌는데 비교적 後代에 附添된 口訣字가 다음과 같은 40여個이다.<sup>17)</sup>

口訣音素文字(子音系)(괄호안은 對應되는 한글字와 推定原字임)

ㄱ(ㄴ, 隱) 乙(르, 乙) ㄷ(ㅌ/ㄷ 叱)

口訣音素文字(母音系)

一(ㅣ, 是) ㅍ(ㅏ, 阿) ㅊ, ㅌ(ㅑ, 於) ㅍ(ㅓ, 午)

口訣音節文字

ㄴ(야 也) ㅌ(여 亦) ㅌ(와, 臥) ㄱ(의/의 衣)

ㄴ(애/에 良) ㅌ(애/에 厓)

可(가 可) 去(거 去) 口(고 古)

乃(나 那) ㅌ(너 亦) ㅌ(노 奴) ㅌ(니 尼) ㅌ(느 飛)

17) 金斗燦(1987), 高麗版 南明集의 口訣研究(檀國大 博士學位論文) 參照

丨(다 多) 力(더 加) ㄱ(더 午) 刀/刃(도 刀) 大(대 大)  
 ㄴ/니(두 斗) ㄷ(더 地)  
 ㄹ/스(라 羅) ㅁ(로 以) ㄴ/禾(리 利)  
 广(마 麻) 久/久(머 旒)  
 火(뽕 火) 次(뽕 波)  
 ㄹ(하 沙) 舍(사 舍) 二(시 示) 士(스 士)  
 ㄴ(하 爲) ㄴ(호 乎) ㄴ(히 屎)  
 ㄱ(면 面) 月(돌 月) 丁(뎡 丁)

위의 口訣字는 앞선 시기의 釋讀口訣과 비교해 보면 字數가 많이 줄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證道歌라는 文體上의 특성일 수도 있겠으나 보다 중요한 이유는 順讀口訣로 바뀌면서 번역의 단순화 내지는 격식화에 말미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그 뒤의 문헌에도 이어진다.

南明泉證道歌에 이어 高麗 後期の 口訣資料를 보여주는 책은 直指心體要節이다. 이 책은 世間에 世界最初의 金屬活字本으로 알려진 것인데, 禩王 3年(1377 A.D.)에 刊行되었다. 麗末의 曹溪大禪師 景閑(白雲和尚)이 歷代에 이름난 스님들의 偈·頌·讚·銘·書·詩·法語·說法 가운데서 禪의 핵심을 깨닫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발취하여 만든 것으로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 원래의 책이름이다. 그 첫 張은 떨어져 나갔고 가운데 18張에 略體 口訣吐가 句에 句에 部分的으로 적혀 있고 또 句讀點도 적혀 있다. 아마 이 책이 간행된 뒤에 어느 學習者가 처음에는 句讀點만 적었다가 그 후에 또 다른 학습자가 口訣吐를 붙인 것으로 생각된다. 全篇에 다 기록된 것이 아니어서 불완전한 것이기는 하나 14세기 말엽 順讀口訣의 實相을 파악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 목록을 정리하면 口訣字의 全貌는 다음과 같다.<sup>18)</sup>

口訣音素文字(子音系)

ㄱ(ㄴ, 隱) 乙(ㄷ, 乙) ㄷ(入, 叱)

口訣音素文字(母音系)

一(ㅣ, 是) 方(ㅍ, 於) 午/五(ㅁ, 午, 五)

口訣音節文字

ㅍ(야, 也) ㅂ(여, 亦) ㅍ(애, 良) ㅍ(애, 庄)

ㅍ(와, 臥) ㅍ(이/의 衣)

可(가, 可) 去(거, 去) 口(고, 古) 果(과, 果)

乃(나, 那) 又(노, 奴) ㄷ(니, 尼) ㅍ(느, 飛)

丨(다, 多) 刀(도, 刀) ㄴ(두, 斗) 入(드, 入)

矢(더, 知) ㄷ(더, 地) 大(대, 大) ㅍ(더, 矣)

底(더, 底)

ㄴ/스(라, 羅) 要(러, 要) 又(로, 奴) 了(료, 了) 禾/리(리, 利)

18) 金斗燦(1987), 直指心體要節의 口訣에 대하여 國語學 16輯 國語學會 參照

尔(며 跡)  
 彳(사 沙) 戶(소, 所) 二(시, 示) 士(스, 士)  
 廾(샤 畵) 立(서 立) 小(소, 小)  
 土(토, 土)  
 丩(하, 爲) へ(호, 乎)  
 斤(늘, 斤) 卩(들, 等) 冫(면, 面) 录(록, 录)

위의 口訣字들은 앞에 나온 證道歌의 口訣字와 거의 같음을 보여준다. 口訣吐의 單純化와 格式化가 漢文經典을 읽는 識者層에 廣範하게 形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讀解者의 個人的 趣向에 따라 한 두 個의 새로운 口訣字를 自意的으로 만들어 쓰는 경우도 있었다. 心體要節에서는 “土(토) 斤(늘)” 같은 글자가 이러한 自意的 口訣字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公認過程을 거쳐 後代人들이 踏襲하는 口訣字로 定着되는 수도 있었다.

이와같이 漢文讀解의 節次上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던 口訣吐 使用의 慣行은 자연스럽게 口訣字를 우리말 表記의 便宜文字로 認識하게 되었을 것이다. 한편 비록 漢文讀解의 方便에 局限되기는 하였지만 音素 또는 音節文字로서의 機能에 대한 막연한 認識도 동시에 자리잡혀 갔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간 想像을 펼칠 수도 있다. 즉 이들 口訣字들이 訓民正音의 字形을 決定하는 데 어떤 影響을 주지는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漢文으로 營爲되는 文字生活만이 知識人의 바람직한 姿勢라고 하는 支配的인 通念이 衙前(胥吏)의 文字生活조차도 漢文指向의 吏讀를 使用하는 風土속에서 口訣字를 文字로 認識하는데에는 制約이 따랐을 것이지만 문득 漢字로 音寫할 수 없는 어떤 우리말 音節을 포기해야 할 필요를 느낄 때, 그리고 거기에 合當한 訓音을 利用할 漢字도 생각나지 않을 때 口訣字의 未備를 痛感하며 口訣類 表音文字의 體系化를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실상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訓民正音 創制時에 創制者들이 가졌던 發想의 一部이기도 하다.

口訣字들이 訓民正音의 字形에 어떤 影響을 주었으리라는 假定이 決코 虛妄하지만은 않으리라는 한가지 證據를 마련해 보기로 하자. 먼저 訓民正音 中聲字(母音)가 天地人으로 表象되는 “·—|”를 基本劃으로 하고 있음을 注目한다. 그리고 口訣字에서 “·—|”를 包含한 것들을 추려 본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口訣字가 뽑힐 것이다.

ㄴ(라, 羅) ㄷ(여, 亦) ㅌ(와, 臥) | (다, 多) ㅍ/五(오, 午·五) ㄱ(에, 厓)

여기에 약간 빳긴 劃을 갖고 있는

ㅅ(어, 於) ㅊ(에/아 良) ㅍ(이 是)

등을 포함시킨다면 그것들은 공고롭게도 訓民正音에서 中聲字로 불리어졌던 것과 一脈相通함을 느낄 수 있다. 다시말하여 點, 垂平線, 垂直線으로 이루어진 劃이 不規則的인기는 하

지만 오랫동안 母音字의 原始形態를 維持하여 왔다는 것을 確認할 수 있다. 累百年에 걸친 口訣字의 이러한 慣行이 訓民正音 創制時에 母音字의 模型으로 作用하지 않았을까 하는 推測은 진실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다. 위에서 자세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口訣音素文字 母音系를 口訣音節文字라 分離하여 놓았던 것은 막연하나마 高麗때 祖上들이 意識했을 中聲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고 싶었던 때문이었다. 子音의 基本字들도 圓方角(○□△)을 基礎劃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口訣字에서 散漫하고 不規則적이기는 하지만 전혀 찾아 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母音의 경우처럼 對應이 그럴듯한 字形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으적 “乙”이 “ㄹ”과의 近似함을 認定할 수 있을 뿐이고, “ㅈ”이 “ㄷ”과의 비슷함이 있으며 “ㄱ(隱)”과 “ㄴ(古)”가 音價와 關係없이 訓民正音의 子音字와 字形上의 相似性を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相似性이 전혀 無意味하지 않다는 점을 거듭 強調해 두고 싶다. 또한 종래에 訓民正音 創制의 段階를 論하면서 借字表記의 溫床에 格別한 關心을 보였던 견해<sup>19)</sup>가 더욱 돋보인다는 점도 강조해 두어야 하겠다.

#### 4. 結 語

以上으로 高麗時代 言語·文字의 概觀을 마무리 짓는다. 지금까지 論議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鷄林類事를 통하여 高麗前期言語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시기는 開城의 言語가 우리나라 共通語로 確立됨으로써, 歷史上 처음으로 韓半島 中央에 위치한 開城이 言語上의 中心地가 되었음이 注目된다.

2. 鷄林類事に 나타난 言語資料는 開城의 高麗語가 高句麗系統의 言語를 底層으로 하였으리라는 心證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新羅系統의 慶州語를 그대로 계승하였음을 보여준다. 難解語로 남아있는 語彙資料도 北方의 다른 알타어系 言語와의 關係에서보다도 現代國語속에 殘存한 化石形과의 關係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語彙史의 觀點에서 보면 高麗前期는 固有語와 漢字語의 二重體系였고, 高麗後期에 오면 몽고어를 대량으로 받아들임으로써 固有語, 漢字語, 蒙古外來語의 三重體系가 形成된다.

4. 高麗時代의 文字生活은 正統漢字와 借用漢字로 兩分된다. 正統漢字의 一般的인 使用과 借用漢字의 制限的인 使用은 高麗 知識人의 文字生活을 特徵짓는 중요한 一面이었다.

19) 이에 관련된 대표적인 논문은 金完鎭(1983)과 金完鎭(1986)이다. 두번째 논문 마지막 부분을 여기에 옮겨 본다.

“요약하면 훈민정음은 정통적인 표기수단이었던 차자표기의 온상에서 배태되어 운학과 역학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제자원리를 표방하였고 끝내는 그들의 논리학이요, 철학이었던 역학의 논리로의 승화까지를 지향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 이러한 인식의 발전을 위하여 이른바 창제에서 반포까지의 3년간의 짧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5. 借用漢字의 使用은 借名·鄉札·吏讀·口訣의 네 가지였다. 借名은 독립적으로 쓰였다기 보다는 正統漢字使用時와 吏讀使用時에 어울려 쓰였으며, 鄉札은 帝王과 僧侶에 제한된 愛用이 있었으나 곧 終末을 맞았다. 高麗의 全期間을 통하여 가장 生産的이었던 借用漢字는 吏讀와 口訣이었다.

6. 특히 口訣은 略體口訣字를 개발하여 널리 사용하였으므로 後代에 새로운 音素文字 訓民正音의 字形 確定時에 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略體口訣의 使用은 우리 祖上들이 매우 오랫동안 音素文字 및 音節文字의 경험을 쌓게 하였다.

## 參 考 文 獻

- 姜信沆(1980), 鷄林類事「高麗方言」研究, 成均館大學校 出版部.
- 金斗燦(1987a), 高麗版南明集의 口訣研究, 檀國大 大學院.
- \_\_\_\_\_ (1987b), 直捐心體要節의 口訣에 대하여, 國語學 16, 國語學會.
- 金完鎭(1983), 訓民正音制字經緯에 대한 세 考察, 金哲俊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知識產業社.
- \_\_\_\_\_ (1986), 訓民正音創制의 諸段階 第一次 KOREA學會 學術세미나論文集.
- 南豐鉉(1990), 高麗末 朝鮮初期의 口訣研究, 震檀學報 69號 震檀學會.
- 朴喜淑(1988), 鷄林類事, 高麗方言의 「婆記」와 「曹兒」에 대하여 蘭臺 李應百教授停年退任 紀念論文集.
- 徐鍾學(1991), 吏讀의 文法形態 表記에 관한 歷史的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 沈在箕(1975), 舊譯仁王經上 口訣에 대하여, 美術資料 18. 國立博物館.
- 安炳浩(1991), 原·朝鮮語とアルタイ諸言語 アシアフォーラム No. 4, 大阪經濟法科大學.
- 安秉禧(1992), 國語史資料研究, 文學과 知性社.
- 李秉根(1988), 訓民正音의 初·終聲體系, 訓民正音의 理解(신상순의 편) 한신문화사.
- 李丞宰(1989), 借字表記研究와 訓民正音의 文字論의 研究에 대하여 國語學 19. 國語學會.
- \_\_\_\_\_ (1992), 高麗時代의 吏讀, 太學社.
- 李基文(1972), 改訂 國語史概說 民衆書館.
- \_\_\_\_\_ (1991), 國語語彙史研究 東西出版社.

## 《Abstract》

**A Study on Language and Writing System in Koryo-Dynasty Period****Jae-Kee Shim**

This paper aims at the survey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nguage and writing system in Koryo dynasty period. Owing to the long time of nearly five hundred years and the lack of convincing materials, we can not describe the systematic explanation such as the situation of Yi dynasty period. However, we try to find outstanding features of the language and writing system in Koryo dynasty period. We deal with the Chih-lin Lei-shih(鷄林類事) as language data and Kugyol written on the side-line of the page on some of Buddhism-Sutra as writing materials.

After the detailed discussion, we have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1. Chih-lin Lei-shih shows the early language in Koryo dynasty, and also the first stage of unifying language of Han peninsula.
2. Language materials in Chih-lin Lei-shih are considered as the next generation of Silla common language even though a few materials have Koguryo stratum words.
3. The early stage of Koryo language had two lexical system; pure Korean and Sino Korean. But the later stage had three lexical system: pure, Sino and Mongolian loan words.
4. The writing system had paralleled in two ways; one was the Orthodox Chinese, the other was the borrowing system of Chinese characters adopted to the Korean language (shortly called the Borrowing system).
5. The using of Borrowing system is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Cha-myong(name transcription), Hyang-Chal(poem-transcription), Yi-du(document-transcription) and Kugyol (grammatical-ending transcription). Through the whole period of Koryo-dynasty Yi-du and Kugyol have been the productive writing ways.
6. Especially the simple form of Ku-gyol had been derived from the original form. This simple forms of Ku-gyol is considered to be the primitive model of the Korean alphabet Hangul in the next dynasty.